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이 원 결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
한국 원자력계는
안정적인 원전 운영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힘껏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존경하는 김우식 부총리겸 과학기술
부장관님, 그리고 원자력계 가족여러분,

대망의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해
를 맞이하여 원자력계 가족 여러분의 가
정에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화
석 연료 사용의 급증으로 국제 유가의 가
파른 상승과 지구 온난화 및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고조되어 저렴하고 친환경적
인 원자력의 이용 확대를 자국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0기, 시설 용량
1,772만kW의 원전을 상업 운전하게 되
어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이 되었고, 국
내 전력의 약 40%를 공급하는 중추적인

에너지원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
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원자력 가족여러분!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원자력
계는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룩
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
물 처분 시설 선정 지역인 경주에서 원자
력환경관리센터의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월성 1호기의 최초 콘크리트
타설과 국내 최초의 140만kW급 대용량
신형 원전인 신고리 3, 4호기의 공사가
각각 2013년과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되었습니다.

또한 1978년에 건설되어 30년간의 설
계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가 모든 안전
평가를 거쳐 작년 12월 7일에 원자력안
전위원회에서 10년간 계속운전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원자력계의 발전을 위
해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원자력 가족여러분!

바야흐로 세계 원자력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기회의 시대를 맞이하
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원자력계는 안정적인 원전
운영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동
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힘껏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원자력 분야의 우수 인력 양성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우리나
라 원자력계의 해외 진출 및 수출 시장의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분의 가정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